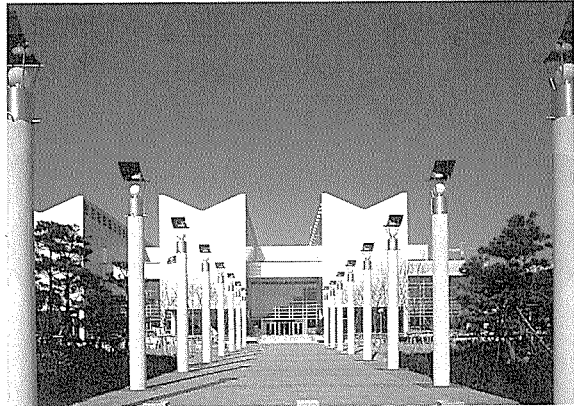


## 장소와 시대 그리고 테크놀로지

### Place, Era and Technology

우신구/ 인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Woo Shin-Koo



부산시립미술관의 외적 형태는 인상적이다. 은회색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현대적 감수성에 호소한다. 이 건물의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고층창을 만들기 위해 톱날형태가 된 지붕일 것이다. 물론 이 지붕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받아들여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현상설계용 설명에도 부합하지만 그런 실용적인 기능보다도 삼각형의 반복을 이루는 형태의 근거로서 더욱 중요하다.

두 개의 삼각형은 하나하나의 전시실 단위와 결합되어 역박공의 단면을 가진 단위 매스를 형성한다. 역박공형 단위 매스의 반복은 미술관 본체와 직교하면서 미술관 외관

What primarily strikes the mind is its impressive form of the exterior: The silver aluminum panels of its surface correspond to the ultra-modern taste, while the roof displays a dynamic shape of a sawtooth. It enables the invitation of sunlight into the galleries, thus promote the energy-efficiency of the building, but the emphasis of its purpose is not on this functional aspect but on its justification of the finalized form - a repetition of triangles.

Two of these shapes, combined with a unit of the gallery, create a section with overturned triangular roof, whose multiplicative layout runs perpendicular to the main body of the museum and determines the frame of the overall exterior. Walls, naturally devoid of windows since they form the envelope of the galleries, surround these units. Openings, on the other hand, are only made in the sides of the sawtoothed roof.

This shape of the upper cover, the repetition of unit volumes, walls without windows, and finishings with metallic material synthesized - in other words, view of the exterior as a whole, arguably suggests an image of a factory, or a gigantic machine. They allude to the functional precision of a factory building, the efficient placing of its components, and the objectivity of metallic substances. Thus, we can conclude that the formal features of this building were derived from

의 큰 틀을 이루는 것이다. 전시실이기에 당연히 창이 배제된 벽면이 그 단위를 에워싸고 있다. 창은 상부의 톱날지붕 측면에만 설치되었다.

톱날형태의 지붕, 단위 매스의 반복, 무창의 벽면, 금속성의 마감, 이런 외관상의 형태적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공장 혹은 기계를 떠올리게 한다. 공장건물의 기능성과 부품조립의 효율성, 금속재료의 즉물성 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물의 강렬한 형태와 마감은 기계미학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비롯된 기계미학의 연상을

machine aesthetics.

This comprehension is further supported by the condition of the site. It is where the naval port of Haewoonpo was located, which was replaced, after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with an airport facility, whose trace is still visible in the large unoccupied space across from the Museum. Just as the battleships of the port were in that era, the shiny silver airplanes were then products of state-of-the-art technology. They were the very symbol of advanced science in the mechanical age.

It is also the site of Pusan Information Industry District, one of the city's most ambitious projects for the future. To summarize it diachronically, the region first started out as a naval port for constructing and repairing battleships, and then transformed into an airport, an embodiment of mechanical civilization, and now, looking forward to go through yet another major reconstruction as a site for the research and industri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al technologies.

Why it is capable of providing a space for such diverse functions is that,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of Pusan which is sloped along what is in-between large mountains, this place, loc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Suyoung River, is largely a plain ground, whose total area has been increased with the reclamation works.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미술관 부지가 가진 장소성이다. 이곳은 과거에 '해운포'라고 불리웠던 넓은 포구로서, 수영이란 말은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즉 좌수영에서 비롯되었다. 근대화 이후에는 이곳에 비행장이 들어섰다. 미술관 측면 맞은 편 넓은 부지에는 아직도 비행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근대화 이전의 좌수영이 통솔하였던 전함들이 그러했듯이, 은백색의 비행기들은 동시대의 최첨단 기술이었다. 그것은 기계시대의 가장 정교하고 발전된 테크놀로지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또한 부산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가 들어설 부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일대는 과거에는 전함을 건조하고 유지했던 군항에서, 기계문명의 총아였던 비행장으로 바뀌었다가 앞으로는 정보통신문명의 첨단지역으로 변화될 지역인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이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까닭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틈과 경사지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부산지역과 달리, 수영강 하구를 따라 모래펄로 이루어진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매립공사를 통해 그 평지는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들이 과거부터 선박, 비행기, 정보와 같은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잇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장소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The reason so much technological fields of ships, planes, and telecommunications we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can also be found in its mediating position between the stream and the sea. It has long been acknowledged as an ideal site for a technology-oriented public facility. It continues to act this role with its upcoming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center, as well as yachting stadium, Olympic Park, and grand stadium for the World Cup games.

In the second floor of the Museum is placed a video artwork of Nam-june Paik - a wagon propelled by a horse made of mechanical parts. What controls the horses is a groom composed of multiple monitors, and a lady dressed in traditional clothes sits inside the wagon.

The work is titled Communication Transporta.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curator of the Museum had the fact in mind, but this title curiously corresponds to the character of the facility's site.

Those who are accustomed to the sight of international airliners arriving and departing from the Suyoung Airport will be familiar with the metallic surface of the Museum, for it is very suggestive of the mechanical bodies of the airplanes. Architect Lee Yong-heum also mentions the shape of an ocean liner as the Museum's prime source of form. It seems that the Museum's

공공시설에 적합한 장소로서 과거부터 인식되었던 것이다(이 주변에는 시립미술관 외에도 오토경기장, 올림픽공원이 있고 컨벤션 센터, 월드컵경기장 등이 계획 또는 건설되고 있다).

이 미술관의 2층 홀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한 점 전시되어 있다. 기계부속품으로 만든 말이 끄는 이 룬마차이다. 말을 조정해서 마차를 끄는 것은 여러 대의 모니터로 조화된 비디오 마부이다. 마부 뒤의 마차 좌석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소통-운송(Communication Transporta)'이다. 미술관 큐레이터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묘하게도 이 제목은 바로 미술관이 건립된 부지의 장소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영비행장을 이착륙했던 국제여객기들을 타고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 장소는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였을 것이다. 대형 비행기의 반짝이던 금속제 표면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미술관의 금속성 외부 마감재료는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계자인 이용흠씨 역시 이 건물의 형태를 범선과 연결지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미술관은 마치 거대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연상시키면서 부지의 장소성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술관 내부의 공간구성은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이다. 관람동선의 핵심은 넓은 중앙홀과 중앙계단이다. 중앙

intentional analogy to grand ships is an answer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site which was anything but characterless.

The composition of the Museum's indoor spaces is simple but rational. The focal point of the visitor's circulation is the spacious center hall and the main stairway. The former is extended along the length of the exhibition floor where the gallerie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opposite ends. With this crisp planning, one need not worry about getting lost and losing one's sense of direction amongst the interlocking spaces. What connects the halls of each stories is the main stairway that sits in their middle, that, while the galleries are united by the main hall, vertically integrates the various halls.

Between the galleries are large windows open to the outside view which provide the visitors with an alternative sight from the artworks.

The main finishing materials of the interior, minus those accessories from the stairs connecting the first-floor lobby and the galleries, are paint or hemp cloth over gypsum board, travertine marble, and wood. With warm color and texture, they succeed in providing a sense of uniformity in the indoor spaces.

But with all these merits, one thing that cannot be fully accepted is the strange absence of technology, which had such a

홀이 전시층의 가운데에 길게 이어지며 각 전시실은 이 홀의 양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가신 부대낌이나 위치감의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각 층의 홀을 연결하는 것은 홀 가운데 자리잡은 중앙계단이다. 전시실들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 홀이며, 각 층의 홀들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계단이며서 움직임이 명료하다.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의 넓은 유리창을 통해 외부의 경관이 홀 내부로 이어져 작품의 연속적 감상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든다.

1층로비와 전시층들을 연결하는 계단의 일부 약세사리들을 제외한 내부 마감 즉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혹은 마직천, 트레이턴 대리석, 목재 플로링 등은 따뜻한 질감과 색감으로 거대한 내부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외부의 형태와 마감의 구성에서 그토록 중요한 주제를 형성했던 테크놀로지는 내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흔적은 계단을 지지하는 기둥의 마감과 상단에 붙여놓은 금속제의 장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오히려 내부 마감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자. 미술관 건물과 그 속에 전시된 미술작품 사이에서 평행적인 관계를

상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또한 거기에 사용된 형태나 모티프 혹은 주제가 유사하다면 분명히 그 두 작품에는 공통적인 시대의 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백남준은 전자부속품으로 만든 말이 끄는 이륜마차에 모니터들을 조합해서 만든 마부가 한복을 입은 여자를 태우고 가는 비디오아트를 전시하고 있다. 이 마차를 끄는 것은 기계말과 비디오마부이며 그에 끌려가는 것은 전통적인 이륜마차와 한복을 입은 규수이다.

너무 단순한 해석일런지는 모르지만 백남준의 작품은 지금 현재의 문명을 선도하는 테크놀로지가 마차와 전통의복을 입은 사람과 결합된 그 묘한 이중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는 말과 마부, 그리고 마차를 탄 사람이라는 과거의 풍경이다. 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는 전자 테크놀로지이다. 형태는 과거의 것이되 그 내용을 비디오 테크놀로지로 치환함으로써 현대의 영상 및 미디어 문화, 그것이 초래한 미술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과 수용방식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주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미술관과 백남준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백남준의 설치미술이 과거의 외부와 테크놀로지라는 내부를 가졌다면, 부산시립미술관은 테크놀로지라는 외

meaningful role in the decision of the exterior form, in its application in the inside. Merely glimpses can be found in the metallic ornaments of the columns that support the stairways. It has become the disparate minor element within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nother look at the work of Paik. It may be a futile attempt to form a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the Museum building and the works it exhibits. But since these two "works" were produced in a similar period with a shared form and motif, we can derive a common zeitgeist or issue from them.

Paik's work, as mentioned above, displays a horse made from various mechanical elements that is connected to a wagon run by a horseboy, or a set of monitors, and occupied by a traditionally-dressed woman. In other words, those who lead are the mechanical horse and the electronic groom, and what are led are a wagon and a young lady, both in traditional styles.

Risking the criticism for a over-simplified interpretation, I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theme of the work is in the uneasy schism between the two different, or contradicting, values of technology and tradition. What is presented as a whole is an age old view of a horse and groom, a wagon and a passenger. But what comprise its inner core is the electronic science - which ends up as a

work whose form is that of history but with a transplanted content of modern technology. It delivers a message on the new possibilities of expression and its reception of ar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media culture.

With its shared theme of technology, the Museum and Paik's work actually stand in opposition to each other in their attitude towards it. While the video artwork has an aged body with high-tech content, the building is covered with the technological surface and has a traditional interior.

The recent exhibitions of the City Museum are largely occupied with installation works, which, as well known, started out as an alternative form of art that seeks to transcend the limits of traditional paintings and sculptures. They were successful in their attempt to break the flatness of the old mediums, and the incorporation of interior space into their works. They are concerned with the abolishment of traditional categorizations, passionate to invade even into the realm of architecture.

The ultimate effect of this trend is on the old concept of appreciating artwork, which was based on the established distance between the viewer and the work. It is not a mere accident that the natural lights invited into the galleries through toplights often get

부와 전통적인 내부를 가지고 있다.

시립미술관이 기획전시하는 최근의 작품들 중에는 설치미술들이 많다. 알다시피 그 설치미술은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타난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이 가졌던 평면성과 내부공간의 부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성을 담으려고 하는 작품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설치미술은 회화, 조각의 전통적인 범주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건축의 고유영역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와 같은 일정한 거리를 둔 관람자와 대상이라는 전통적 미술감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고층창을 통해 어렵사리 유입된 자연광이 설치미술의 전시시 종종 가려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미술의 국면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배경에는 항상 과학기술의 자극이 있었다. 원근법, 사진, 기계, 현대 물리학, 전자공학, 컴퓨터 등은 미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건축 역시 과학기술과의 교차지점에서 많은 변화의 계기를 발견해온 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혹은 그 형태의 새로움을, 또 때로는 그 빠른 움직임과 이동을 건축은 동경해 왔다. 종종 건축은 스스로 기계가 되고

자 했다.

하지만 건축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내부 설비의 기계화·자동화로 해석한다면 건축의 예술적 함의를 부정하는 일일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건축에서의 테크놀로지를 모던한 외관에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주제를 일치방정식으로 풀은 결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컴퓨터와 비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한 현대의 일부 미술작품들은, 아직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미술관-갤러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한다. 현대미술은 전통적인 미술관이라는 시설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운송-소통을 포함한 테크놀로지라는 장소적·시대적 주제를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표현의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현대와 미래의 미술작품들과 관람객들을 수용하는 현대의 미술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가능성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시립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건축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시대적 주제에 대한 사유와 그 건축적 전개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수영만이라는 장소에서 건축가가 먼저 하이테크라는 주제를 던진 부산시립미술관이 현대건축으로서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blocked in these exhibitions.

What has motivated the change of aspects and styles in the world of art has always been f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vention of perspective representation methods, photography, machines, and the developments in modern physics, electronic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have affected not only the form but the content of art.

Architecture also has developed through its crossings with the modern technolog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rchitects longed for the mechanisms or forms of the machines, sometimes fascinated with and seeking to embody their rapid movements. Architecture, in various ways, sought to be the machine.

Bu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of mechanical culture to architecture in terms of literally introducing machinery and automatization into installations of the buildings is to ignore the medium's artistic connotations. In the same respect, it would also be a rather naive solution to incorporate technology merely on its outer skin.

Some contemporary artworks using computers and video technology are gradually defying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ystem of art museums and galleries. Though their

influences are yet to trigger major reconsideration o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are raising ground-breaking questions on the essence of them.

Though technology including those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s taken as a temporal, spatial theme for the City Museum, the real concern should have been made in the establishment of Museum itself, its presentation of works and its stance towards the viewers, when, in the information-based era, more and more works of art are accepting high-tech as both their theme and form.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Museum is not an issue here. While some shortcomings can be explained by its limitations as a public project executed by the City, this status itself should have catalyzed more considerations on certain interpretations of the age and its responding architectural strategies. In this project placed on a heavily coded site, the architect suggested "contemporary" technology as its primal theme, but the finished work seems to be lacking in what makes an architecture "contemporary" after all.